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1년 11월]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1. 12. 10.

목 차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1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3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16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	10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 가상자산 시총 사상 첫 3조달러 돌파...1년새 6배

- 2021.11.9.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만8530.34달러(약 8073만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으며 이더리움 역시 4837.59달러(약 570만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다 (2021.11.9.)

* 출처 : '천장 뚫린' 가상자산, 시총 첫 3조달러 돌파 (파이낸셜뉴스 이설영 1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36892?sid=101>

-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장을 견인하며 알트코인들의 시세도 상승, 가상자산 총 시가총액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3조달러를 돌파하였으며 1년 전보다 6배 급증함
 - ▶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시장 상승의 배경으로 작용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자금이 몰리는 것과 같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 코인세어스에 따르면 2020.11.6.까지 가상자산 펀드에 유입된 기관 자금은 총 33억5400만달러(약 4조원)였는데, 올해에는 10월 29일까지 총 87억2000만달러(약 10조원)로 유입 규모가 2.6배 커졌으며, 기관 투자의 유입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 출처 : 가상자산 시장 1년새 6배... 변동성 줄면서 체력도 강해졌다 (파이낸셜뉴스 이설영 11/8)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36119?sid=105>
- ▶ 지난달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EFT)가 상장되면서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시장규모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함
 - ▶ CME는 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은 한 계약 당 10분의 1 ETH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마이크로 이더리움 선물계약 상품도 출시할 계획으로 개인들의 투자 접근성을 높일 전망

□ 올해 한국 가상자산 도입 지수 '40위'

-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동아시아: 강력한 규제
로 가상자산 규모 순위 하락’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거래 금액
은 452% 증가했지만 전 세계 거래량 비율은 작년(31%)과 비교했을 때
14%로 낮아짐 (2021.11.1)

* 출처 : 체이널리시스, 올해 한국 가상자산 도입 지수 '40위' (데이터넷 강석오)

<https://www.news1.kr/articles/?4454195>

-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경제 규모를 자랑하던 동아시아 지역은 2020년 7
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거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일반인의 가상자
산 도입률도 상대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40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4위였던 중국은 13위, 홍콩은 39위, 일본은 82위를 기록했다.

□ 캐시 우드 “비트코인, 5년 내로 50만달러 넘어설 것”

-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최고경영자)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
코인 투자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5년 내 비트
코인 50만달러(약 5억8975만원) 도달' 전망을 재확인함

* 출처 :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비트코인, 5년 내로 50만달러 넘어설 것” (디지털타임스 이영석)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06817>

- ▶ 우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향후
5년 내로 50만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비트코인을 5% 할당한다면, 오는 2026년까지 약 56만달
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해 외

○ 미국

-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핵심 경제부처 수장 등이 포함된 백악관 금융시장 워킹그룹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함 (2021.11.1.)

* 출처 : "美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달러가치에 연동해 운영" (매일경제 박용범)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11/1039225/>

- ▶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사실상 은행처럼 취급하는 안을 의회에 제안했으며, 발행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를 받는 대신 자본과 유동성 규제를 받게 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감독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영국

- 영국 중앙은행인 연란은행(BOE)은 영국 재무성과 함께 디지털화폐 연구에 관한 '다음 단계' 착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내년에 디지털화폐 개발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임 (2021.11.10.)

* 출처 : 영란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본격 논의 (파이낸셜뉴스 강규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14&aid=0004737197>

- ▶ 양측은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이용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살펴볼 방침이며, 영란은행은 다만 영국 내 디지털화폐 도입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중국

- 10월 말 기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거래량은 지금까지 총 620억위안(약 11조5000억원)에 이르며, 취급 소매점수는 약 155만개점, 디지털 지갑 사용률로 파악한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는 약 1억4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2011.11.5.)

* 출처 : 중국,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 1억4000만명 돌파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660>

- ▶ 디지털 위안화는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1년 이상 시범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민은행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디지털 위안화 출시일을 확정하진 않고 있음

o 일본

-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소 2023년 이후에야 CBDC 발행을 고려하던 일본은 중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논의하고 있음 (2021.12.01.)

* 출처 : 일본, 디지털화폐 발행 빨라진다?... '중국 견제 위해 2023년서 앞당길 수도'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1164045593>

- ▶ 지난 10월 초 새로 취임한 고바야시 경제안보담당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5일 국제사회가 CBDC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뿐 아니라, 자국의 CBDC 발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수 차례 CBDC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음
- ▶ 고바야시 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CBDC를 추진한다면 일본의 국가 안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언제든지 '디지털 엔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됨
- ▶ 다만, 일본은행(BOJ)은 지난 4월 디지털 엔화 도입 1단계 실험에 착수했으며, 이후 2023년까지 계획된 정책은 없는 상황으로 당시 BOJ 측은 디지털 엔화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면서 CBDC 도입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o 베트남

- 베트남 정부 포털에 고시된 ‘2021~2025년 비현금결제 촉진 계획 (1813/QD-TTg)’ 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앙은행 주도로 비현금결제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화폐 메커니즘 및 정책을 연구 및 개

발을 추진하고 있음 (2021.11.1.)

* 출처 : 베트남, 국가 디지털화폐 개발 나선다 (인사이드비나 장연환)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56>

- ▶ 팜 민 찌(Pham Minh Chinh) 총리는 중앙은행(SBV)에 내년중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디지털화폐 개발 및 정책을 수립하라고 중앙은행(SBV)에 직접 지시하였으며 정보통신부는 전자식별 및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公安부는 전자기기에서 요청된 전자식별 및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을 규정하고 안내 업무를 맡게 됨
- ▶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비현금결제 총액이 국가 GDP의 25배에 이르고, 전자상거래에서 비현금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의 80% 이상이 은행계좌를 갖도록 하고, 전자결제를 장려해 현금대신 비현금결제를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

□ 국 내

○ 한국은행

-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국이 CBDC 연구에 있어 뒤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2021.11.18.)

* 출처 : 한은 "우리나라 CBDC 연구,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 (지디넷코리아 임유경)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239630>

- ▶ 배 부총재는 “최근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추진 중이거나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연구는 연구개발과 개념검증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 환경에서 CBDC 시범운영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국가는 없다”고 밝힘
- ▶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CBDC 연구를 시작해, 올해 3월 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8월부터는 CBDC 모의실험 시스템을 구축 중

이며 내년 6월까지 가상환경에서 진행되는 모의실험을 통해 CBDC 발행 · 유통 · 환수 · 오프라인 결제 등의 기능 작동을 검증할 계획임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해 외

○ 미국

- 메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직속 금융시장실무그룹(PWG)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당국이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힘 (2021.11.23.)

* 출처 : 미·EU도 가상화폐 제도화 속도 (매일경제 명지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83311>

- ▶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임
-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시장에 당선된 에릭 애덤스(61) 시장 당선자가 기업 친화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으며, 뉴욕을 가상자산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힘 (2021.11.4.)

* 출처 : “뉴욕을 가상자산 중심 도시로”...‘親기업’ 시장 당선자에 “협력”화답 재계 (헤럴드 경제 홍성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08148?sid=104>)

- ▶ 애덤스 당선자는 블룸버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뉴욕을 가상자산 친화적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으며, 그는 마이애미 시장이 이른바 시티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처음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 “우리 도시에서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고, 시가 가상자산 관련 직업을 위한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

○ 호주

-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뱅크(CBA)가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2021.11.4.)

* 출처 : 호주 최대은행, 이달 중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시범 운영 (조선일보 황지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50814?sid=104>

- ▶ CBA는 뉴욕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제휴해 이용자 수가 640명에 달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에게 가상화폐 거래 및 보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함
- ▶ 호주에서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건 CBA가 처음으로 CBA는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 등 가상화폐 10개 종류를 주요 거래 대상으로 선정함

○ 싱가포르

-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암호화폐 산업의 국제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로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힘 (2021.11.5.)

* 출처 : 싱가포르 통화청 "암호화폐 산업의 국제허브 되겠다" (한국경제TV 대니얼 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994945?sid=101>

- ▶ MAS의 라비 메논 이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사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단속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함
- ▶ 메논 이사는 또 “잘 규제된 국내 암호화폐 산업은 이미 세계의 주요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가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에서도 시장의 주도권을 쥌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전통적인 금융 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국 내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

부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2일 처리됨 (2021.12.3.)

* 출처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2023년부터 250만원 이상 벌면 20% 과세 (매일경제 박수호)
<https://www.mk.co.kr/economy/view/2021/1114377>

-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지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됨
- ▶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으나 올해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 ▶ 가상자산을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기로 한 내용은 유지돼 소득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250만원이 넘어가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지방세 2%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22%임

○ 금융위원회

- IT조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만으로는 탈중앙화금융 서비스(디파이, DeFi)와 대체불가능토큰(NFT)에 규제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니며, 우선 디파이·NFT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2021.11.2.)

* 출처 : 금융위 “FATF 지침 강제성 없어...규제 여부, 검토 필요” (IT조선 조아라)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1/2021110101846.html

- ▶ 앞서 FATF는 디파이와 NFT 개발사·서비스 운영사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개인간(P2P) 거래, 스테이블코인도 여기에 포함하였으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디앱 기준은 명시하지 않음
- ▶ 금융위 관계자는 “FATF의 이번 지침은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국이 FATF의 지침을 법제화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힘

- ▶ 금융위는 FATF가 디파이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부분에 방점을 두고, 그 자체로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투자나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등 가상자산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 규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석함
- ▶ 다만 금융위는 디파이와 NFT에 대한 범위, 그리고 사안별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 이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업권법 등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내 관련 서비스들이 자금세탁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정치권

-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시장의 금감원 기능을 하는 가칭 디지털 자산감독원 신설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음 (2021.11.3.)

* 출처 : 이재명 '가상자산감독원' 공약으로 검토...2030 표심 공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79956?sid=100>

- ▶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가상자산감독원을 설치해 시세 조종이나 자전거래, 해킹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으로 관련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회 정무위원회

-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업권법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5명의 진술을 청취함 (2021.11.17.)

* 출처 : 가상자산업권法 공청회 "투자자 보호는 YES·포괄 규제는 NO" (머니투데이 김하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1614174694753>

- ▶ 박선영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실체와 본질은 분명하다"며 "의무공시, 불공정거래금지, 매매거래원칙, 수탁자산보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업법권의 도입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함

-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 투자정보에 대한 의무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에 준하는 가상자산시장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금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행위·건전성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상자산산업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중복된 진입규제와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업권법을 성급하게 제정하기 보다는 법정화된 자율규제시스템의 뒷받침 하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지켜보고 추가적 보완 방안을 고민해보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
- ▶ 윤 변호사는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선부른 규제는 의도치 않게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며 “포괄적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산업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힘

4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 해 외

○ 마스터카드

- 외신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태국의 앰버(Amber)와 비트쿱(Bitkub), 호주의 코인자(Coinjar) 등 가상자산 기업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상화폐 기반 신용·직불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됨 (2011.11.9.)

* 출처 : 마스터카드 “아시아태평양서 가상화폐 결제카드 내놓겠다” (매일경제 신혜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76394?sid=101>

- ▶ 마스터카드의 라마 사리하 아태지역 부사장은 “가상화폐는 투자 수단이자 파괴적 기술이자 독특한 금융수단 등의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방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실제 적용 범위도 상상 이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밝힘
- ▶ 앞서 마스터카드는 지난 2월 자사 결제 네트워크에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지난 달에는 미국 내 가상화폐 결제 네트워크를 도입하기 위해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백트의 가상화폐 지갑(전자지갑)을 활용해 은행이나 가맹점 등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움

○ 트위터

- 파이낸셜 타임즈(FT)는 트위터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Dapp, 뎁), 급증하는 관련 커뮤니티에 집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팀을 출범시킨다고 보도함 (2011.11.11.)

* 출처 : 트위터, 가상자산 전담 조직 '트위터 크립토' 출범 (코인데스크 코리아 전지성)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35>

- ▶ 이 조직은 트위터 크립토(Twitter Crypto)라 부르게 되고 잭 도시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주목하거나 추진하는 업무를 전담할 예정으로 그는 결제기업 스쿼어도 이끌고 있음

○ AMC

-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최대의 극장 체인 AMC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티켓 구매 결제를 개시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4종의 암호화폐를 지원함 (2011.11.13.)

* 출처 : 美 극장 체인 AMC, 마침내 암호화폐 4종 결제 개시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78>

- ▶ AMC 엔터테인먼트의 애덤 아론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을 지원하고, 조만간 도지코인(DOGE)도 결제 지원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함

○ 씨티그룹

- 코인데스크US는 씨티그룹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의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출처 : 씨티그룹, 가상자산 전담 인력 100명 신규 채용 (코인데스크 코리아 전지성)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18>

- ▶ 씨티그룹은 가상자산 분야의 기관 투자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디지털 자산 전담 부문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투자를 주도하며 가상자산 사업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12월 1일자로 푸니트 싱비(Puneet Singhvi) 글로벌 마켓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부문 회장을 디지털 자산 부문 기관 투자자 그룹(Institutional Clients Group)의 새로운 책임자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함

○ 아마존

-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상화폐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임 (2021.11.1.)

* 출처 : "가상화폐 전문가 모십니다"...아마존웹서비스, 클라우드 사업 확대 (한국경제TV 홍성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993917?sid=101>

- ▶ 코인데스크는 “아마존이 최근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NFT(대체불가토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목 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함
- ▶ 앞서 아마존은 지난 7월에도 가상화폐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으며,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연내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으나 아마존은 이를 부인함

□ 국 내

○ 카카오게임즈

- 3분기 최대 실적을 올린 카카오게임즈는 스포츠, 게임, 메타버스에 특화된 NFT 거래소를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밝힘 (2021.11.3.)

* 출처 : 3분기 최대실적 카카오게임즈 "NFT 거래소 만들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68586?sid=101>

- ▶ 남궁훈·조계현 카카오게임즈 공동대표는 홈페이지에 올린 주주서한에서 “해당 거래소에서는 카카오게임즈 사업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골프 티

타임 예약권, 게임 아이템, 아이돌 팬아트 등이 디지털 자산화돼 판매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 이들은 이어 “계열회사인 넵튠이 가진 유무형 자산과 카카오공동체가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와 시너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게임과 가상 아이돌 콘텐츠, 자체 경제모델이 구현된 오픈형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함

○ 은행연합회

- 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관련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포섭되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됨 (2021.11.11.)

* 출처 :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에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부서 만들어달라” 요청 (이투데이 박소은)
<https://www.EToday.co.kr/news/view/2076939>

- ▶ 은행연 고위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은행연에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증권형토큰(STO) 등 사업으로 확장될 소지가 크고, CBDC 등 가상자산이 활성화 되면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힘
- ▶ 현재 은행법상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은행이 가상자산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상 취급가능 업무범위거나 부수업무·점영업무에 포함돼야 하나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가상자산 취급 자체가 불가능함
- ▶ 가상자산이 신시장으로 떠오르지만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은행연에 사업 부서 신설을 요청한 것도 커스터디사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